

후쿠시마로부터의 감사 메시지 2020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부터 9년.
2020년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후쿠시마에서는 사고 대응의 거점이 되었던 「J 빌리지」가 전면적으로 푸른 잔디를 되찾고, 축구를 하는 어린이들이 동경하는 곳으로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귀환이 어려웠던 일부 지역의 대피 지시가 해제되었고, 일부 구간에서의 운행이 중단되었던 JR 조반선은 다시 열차의 울림을 되찾습니다.

후쿠시마는 부흥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착실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도 4만 명이 넘는 현민 여러분이 피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향 생활로 돌아오신 분들도 그동안의 변화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게 남아있는 소문이나 희미해지는 관심의 뒷면에,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현민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후쿠시마 역시 태풍과 폭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고 부흥에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웃는 얼굴로 서로를 응원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모토미야고등학교 콘노 미노부 씨)

“재해를 입었을 때, 많은 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남을 도와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타바 마을의 성년이 된 와타나베 미쓰루 씨)

“후쿠시마는 아직 부흥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머물러 있는 사람,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계십니다. 그것이 후쿠시마의 진실입니다.”

간사이에서 현민 심포지엄에 참가한 대학생 오쿠보 케이코 씨

후쿠시마현의 많은 젊은이가 “사람을 위하고 싶다”라고 기원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함 속에 많은 지원을 받아왔고 회복하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친절함이 가지는 힘을 알게 된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수많은 고난에도 과감하게 도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린 지진 피해로부터 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고향은 더 빛나고, 지진 재해 이전보다 더 활기찬 곳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모토고등학교 이카리 마나미 씨)

지진 재해로부터 10 년째, ‘레이와’라는 새로운 시대.

우리는 부흥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쿠시마에서는 자신들의 지역 사회를 다음 세대로 이어 가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메시지이며, 모두가 도전을 계속해 가는 것은 부흥과 새로운 활력으로 연결됩니다.

지진으로 인해 갑자기 일상을 빼앗긴 우리는, 선조들이 쌓아 온 후쿠시마의 일상이 얼마나 돌도 없이 소중한 것인지를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진 재해를 모르는 세대에게 지진 재해로부터 배운 것, 재해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직 말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현민 여러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지진 재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조용히 다가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장래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제가 키운 소의 우유를 마시게 해 주고 싶어요. 마을의 농업을 세계에 전파하고, 낙농가로서 꿈을 이루는 첫걸음을 떼고 싶어요. ”

성화 주자 카츠라오중학교 사쿠마 료지 씨

곧, 후쿠시마에서 올림픽 성화 봉송이 시작됩니다.

여름에는 올림픽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가 이곳, 후쿠시마에서 개최되어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방문합니다.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성화대의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

후쿠시마에서 만들어져 환경친화적 차세대 에너지라는 인류의 꿈을 전 세계에 전파합니다.

올림픽 빅토리 부케에는 후쿠시마의 터키 도라지(유스토마, 꽃도라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꽃말에 나오는 ‘감사’와 ‘희망’.

우리는 후쿠시마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과 마음을 써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전 세계 모든 분이 후쿠시마가 ‘희망’의 빛을 밝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몸에 익힌 강함과 부드러움을 양식으로 삼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언젠가 반드시 부흥을 이룰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매화꽃이 활짝 피어 사람들이 화목하게 사는 “레이와”에 담긴 소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색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후쿠시마의 자부심’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과 함께,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어우러지는, 희망차고 매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후쿠시마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2020년 3월 11일

후쿠시마현 지사,우치보리 마사오